

2020년 4월 2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국제유가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 기록

국제유가 8월 이후 스프레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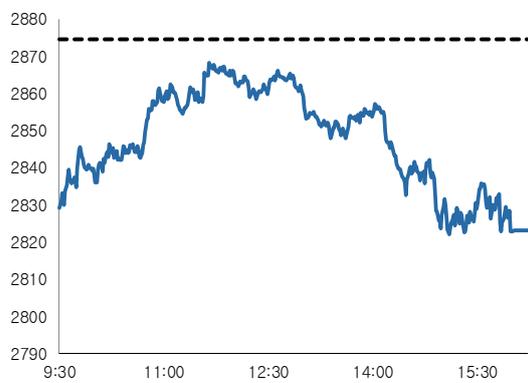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국제유가

미 증시는 국제유가 급락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출발 했으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승 전환에 성공. 그러나 5 월물 WTI 가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패닉에 휩싸이자 재차 하락 전환. 한편, 니만 마커스의 파산 보호 신청 우려로 백화점을 비롯한 중, 소형 종목이 부진한 점도 부정적. 다만, 일부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원유시장과 달리 패닉은 제한(다우 -2.44%, 나스닥 -1.03%, S&P500 -1.79%, 러셀 2000 -1.28%)

국제유가가 선물 만기일을 앞두고 5 월물이 사상 초유로 한 때 마이너스 40 달러를 기록하는 등 패닉셀이 진행. 이 여파로 다음 월물인 6 월물이 장중 한 때 20% 가까이 급락하며 20 달러선 까지 하락하는 등 원유시장이 무너졌음. 이는 각국이 경제 섯다운이 진행되며 수요 부진이 급격하게 이어진 가운데 생산된 원유 저장 탱크도 부족한 점이 영향. 특히 오콜라호마 쿠싱 지역에 있는 저장고가 5 월에 한계에 도달 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가운데 유조선을 이용한 저장 또한 한계에 도달 했다는 점도 영향. 한편, 이러한 재고의 증가는 산유국의 추가 감산량이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분을 하회해 재고가 급증한 점,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족이 주요 요인

주목할 부분은 5 월물은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6 월물이 21 달러, 7 월물이 27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8월물이 29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9월물은 30달러, 이후 각 월물간 스프레드는 1달러 미만을 기록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진이 7 월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경제 재개가 현실화 되면 8 월 이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유 시장이 붕괴돼 우려가 확산될 수 있으나, 3 분기 이후 경제 재개로 원유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1,898.36	-0.84	홍콩항셱		24,330.02	-0.21
KOSDAQ		637.82	+0.48	영국		5,812.83	+0.45
DOW		23,650.44	-2.44	독일		10,675.90	+0.47
NASDAQ		8,560.73	-1.03	프랑스		4,528.30	+0.65
S&P 500		2,823.16	-1.79	스페인		6,831.50	-0.64
상하이종합		2,852.55	+0.50	그리스		606.75	-0.13
일본		19,669.12	-1.15	이탈리아		17,064.14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금융주, 소매 유통업종 부진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엑손모빌(-4.72%), 셰브론(-4.13%)는 물론 옥시덴탈(-7.63%) 등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한편, 고급 브랜드 백화점 업체인 니먼 마커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화점 업종이 부진했는데 신용등급이 강등된 JC페니(-10.33%)는 물론 메이시스(-10.30%), 콜스(-7.68%), TJX(-3.90%)도 급락했다. 이 여파로 JP모건(-3.65%), BOA(-3.35%), 웰스파고(-2.47%) 등 금융주도 하락했다.

더불어 라스베가스 샌즈(-8.25%), MGM(-3.91%) 등 리조트 회사들은 물론 로스스토어(-5.68%), 갭(-6.11%) 등 소매 유통업종 또한 코로나 피해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이와 함께 IBM(+0.24%)은 장 마감 후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 철회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을 보였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5.9% 감소해 예상(650억 달러)을 하회한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3%	대형 가치주 ETF(IVE)	-2.06%
에너지섹터 ETF(OIH)	-2.01%	중형 가치주 ETF(IWS)	-2.52%
소매업체 ETF(XRT)	-1.13%	소형 가치주 ETF(IWN)	-2.00%
금융섹터 ETF(XLF)	-1.74%	대형 성장주 ETF(VUG)	-1.50%
기술섹터 ETF(XLK)	-1.60%	중형 성장주 ETF(IWP)	-1.2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7%	소형 성장주 ETF(IWO)	-0.66%
인터넷업체 ETF(FDN)	+0.56%	배당주 ETF(DVY)	-2.84%
리츠업체 ETF(XLRE)	-3.71%	신흥국 고배당 ETF(DEM)	-2.14%
주택건설업체 ETF(XHB)	-3.2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0%
바이오섹터 ETF(IBB)	+1.29%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79%	하이일드 ETF(JNK)	-1.55%
곡물 ETF(DBA)	-0.88%	물가연동채 ETF(TIP)	-0.31%
반도체 ETF(SMH)	-2.12%	Long/short ETF(BTAL)	+0.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51.60	-3.29%	-2.70%	+29.74%
소재	308.28	-2.54%	-2.54%	+21.29%
산업재	519.05	-2.70%	+0.03%	+20.31%
경기소비재	912.37	-1.27%	+5.33%	+28.26%
필수소비재	609.15	-2.08%	+2.79%	+17.99%
헬스케어	1,164.79	-0.78%	+6.36%	+27.08%
금융	365.35	-1.96%	-2.41%	+16.86%
IT	1,542.96	-1.78%	+2.71%	+23.27%
커뮤니케이션	163.18	-0.92%	+3.09%	+17.99%
유틸리티	295.87	-3.89%	-1.11%	+22.99%
부동산	206.40	-3.74%	-1.90%	+22.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지수 보다는 종목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2.19% MSCI 신흥 지수 ETF 는 1.27%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9.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원유시장이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미 증시가 장중 경제 재개에 기대 상승하기도 했으나 결국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원유시장에 비해 낙폭이 제한 되는 등 경향을 보였다. 특히 VIX 지수의 상승 또한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비록 원유시장이 붕괴되었으나, 8월 이후에는 안정을 찾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 재개가 시작 되면 금융시장 안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시장 붕괴로 인한 우려가 확산되며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예상되나 과거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된다.

한편, 미 증시에서는 제약 바이오 및 온라인 기반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백화점 업체 부도 위험이 부각되자 백화점 업종 및 코로나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하락한 점이 특징이었다. 더 나아가 원유 시장 붕괴로 인한 에너지 업종 또한 부진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도 조정이 예상되나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이 이어지는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부각

미국 4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0.06)을 크게 하회한 -4.19로 발표되었다. 3개월 평균도 전월(-0.20)보다 부진한 -1.47로 발표되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총괄하여 하나의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생산과 소득, 고용과 실업, 소비와 주택, 판매와 재고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85개 경제활동 지표들을 가중평균한 지수다. 특히 경제확장 기간이후 -0.7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이날 발표된 수치가 -4.19인 점을 감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 기록

국제유가는 5 월물 WTI 가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쿠싱지역 재고 한계 가능성이 부각되자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 40 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붕괴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선물 만기일(21 일)을 앞두고 6 월물로 롤오버 물량까지 겹치며 낙폭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여파로 6 월물 또한 15% 가까이 하락한 21 달러 초반을 보였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 재개 기대와 더불어 원유시장 붕괴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노르웨이 크로네,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화 등 원유시장 관련 환율도 달러 대비 2% 가까이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원유시장과 달리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장기물의 하락폭이 큰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제 재개 기대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원유시장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 일부 백화점 업체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 점 등이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시카고 국가활동 지수가 경기 침체를 알리는 -4.19 를 기록하는 등 지표 부진도 영향을 줬다.

금은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37.63	-305.97	-267.92	Dollar Index	99.968	+0.19	+0.62
브렌트유	25.57	-8.94	-19.44	EUR/USD	1.0864	-0.10	-0.46
금	1,711.20	+0.73	-2.85	USD/JPY	107.7	+0.15	-0.06
은	15.750	+1.97	+0.08	GBP/USD	1.2432	-0.54	-0.66
알루미늄	1,503.00	-0.27	+1.59	USD/CHF	0.968	+0.14	+0.06
전기동	5,183.50	-0.53	+3.27	AUD/USD	0.6338	-0.44	-0.69
아연	1,947.00	-0.56	+2.42	USD/CAD	1.4134	+0.95	+1.65
옥수수	322.25	-2.13	-4.16	USD/BRL	5.3075	+1.40	+2.09
밀	547.50	+2.58	-1.44	USD/CNH	7.0904	+0.17	+0.51
대두	836.25	-0.71	-3.02	USD/KRW	1220.50	+0.21	+0.97
커피	115.25	-1.96	-4.44	USD/KRW NDF1M	1219.18	+0.35	+0.3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15	-2.69	-15.65	스페인	0.886	+7.50	+10.90
한국	1.442	-0.70	-1.30	포르투갈	1.040	+8.40	+14.20
일본	0.022	-0.50	-0.10	그리스	2.208	+10.00	+44.00
독일	-0.448	+2.40	-10.10	이탈리아	1.936	+14.60	+34.80